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

December 2020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 +82 2 2112 6744

E: hyojunglee@kr.kpmg.com

임두빈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469

E: doobeenyim@kr.kpmg.com

김규림

이사

T: +82 2 2112 4089

E: gyulimkim@kr.kpmg.com

박도휘

수석연구원

T: +82 2 2112 0904

E: dohwipark@kr.kpmg.com

전창의

수석연구원

T: +82 2 2112 0934

E: changuichun@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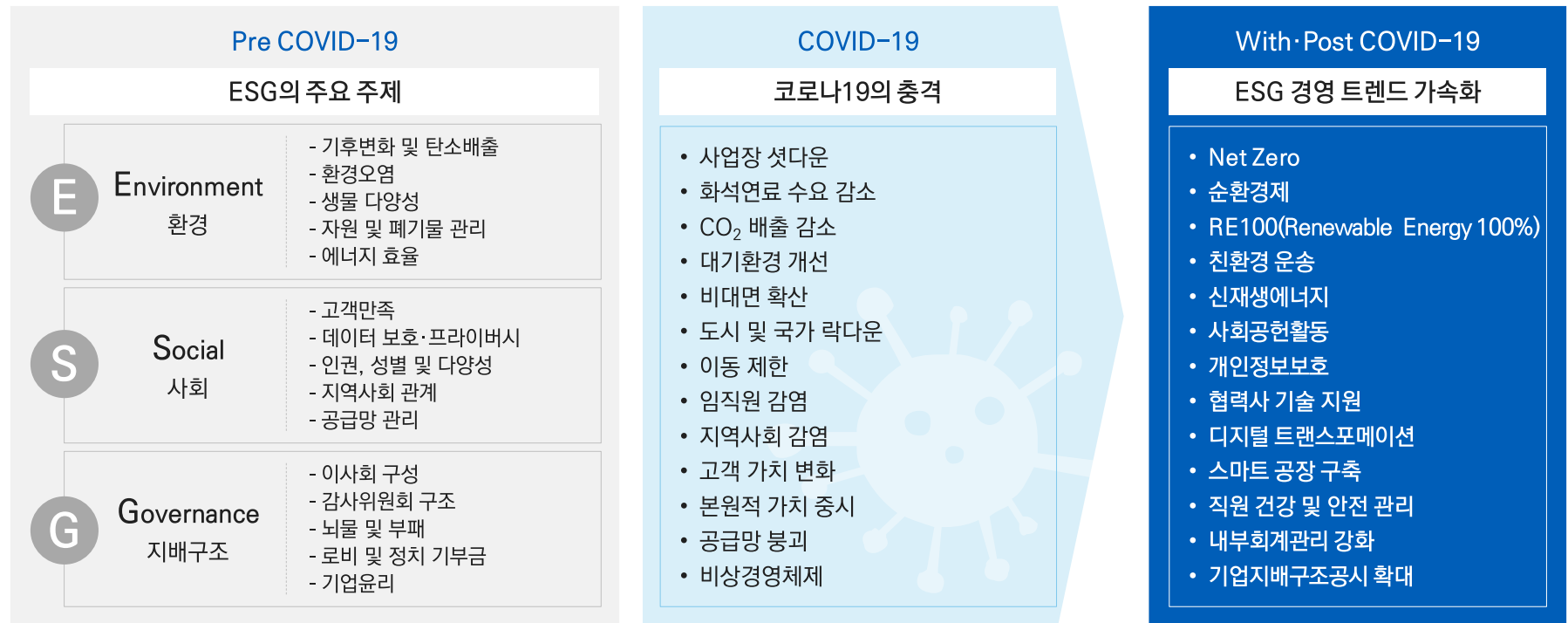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ESG 경영 시대의 도래와 배경	2
II. ESG 경영의 5대 Agenda	6
III. Key Takeaways	12

ESG 경영 시대의 도래

코로나19 이전에도 ESG는 탄소저감, 순환경제, 사회공헌,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음. 코로나19로 기업은 사업장 섯다운, 공급망 붕괴, 대기환경 개선, 임직원 감염, 고객 가치의 본질적 변화 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ESG로의 경영 패러다임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ESG 경영 트렌드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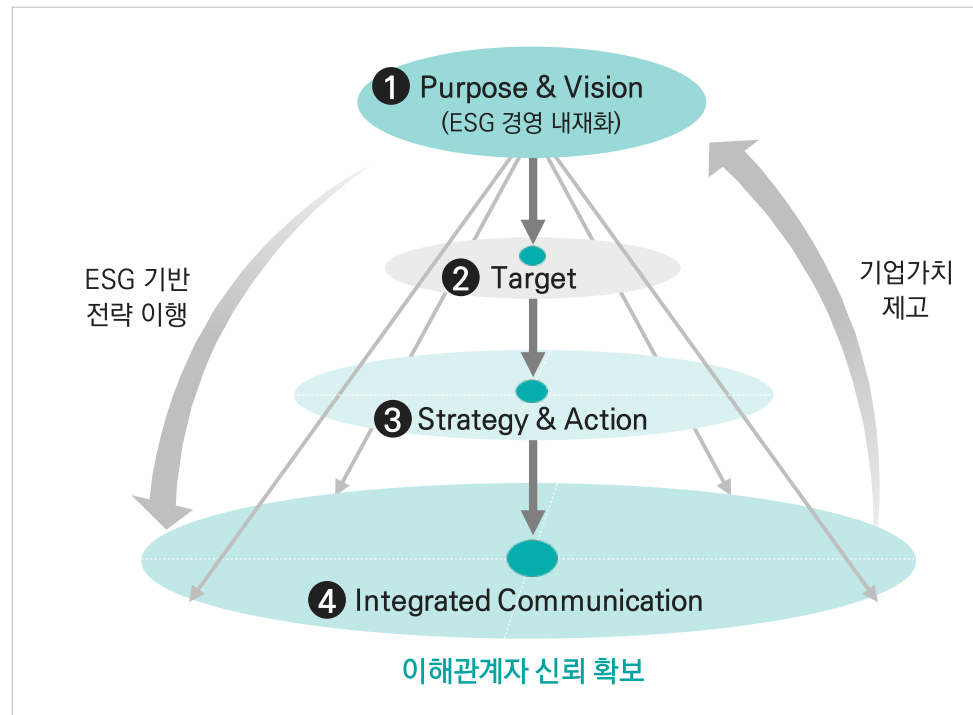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기업의 우선순위, ESG 경영체계 설계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는 기존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 해야함. 기업의 Purpose & Vision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를 우선 수립해야 함.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해 ESG 핵심 Agenda를 검토해야 함

ESG 경영체계 Framework



Source: 삼성KPMG Analysis

ESG 경영체계 설명

- 1 기업의 Purpose(존재 목적) 정의 및 New ESG Vision 체계 구축
- 2 True Value(재무 + 비재무)를 고려한 목표 수립
- 3 ESG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한 핵심 Agenda 검토
- 4 재무·비재무 통합적 대내외 Communication 강화

비즈니스 리더가 주목해야 할 ESG Agenda는?

삼정KPMG는 ESG 경영의 세부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5대 Agenda로 ESG Regulation, ESG Financing, ESG M&A, ESG Tech, ESG Reporting을 선정함

ESG 경영의 5대 Agenda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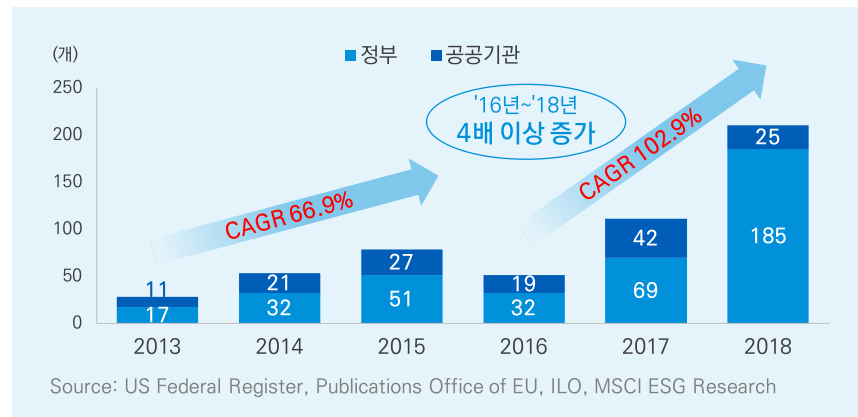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ESG 경영 시대의 도래와 배경	2
II. ESG 경영의 5대 Agenda	6
– ESG Regulation	
– ESG Financing	
– ESG M&A	
– ESG Tech	
– ESG Reporting	
III. Key Takeaways	12

ESG Regulation 《 국가별 ESG 규제/정책 제도화 추진

지속가능발전과 ESG 요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는 ESG 관련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2013년 28개에 불과했던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은 2018년 210개까지 증가했음. 특히 최근 2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며,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임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 증가 추이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ESG 규제/정책 제도화 추진하에 신규 규제/정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3년~'15년까지 연평균 66.9% 증가 → '16년~'18년까지 연평균 102.9% 증가
- 반면,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신규 규제/정책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 사례

권역	규제/정책 사례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분류체계(EU Taxonomy)' 기준 수립 중 • 지속가능금융 Action Plan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부터 '27년까지 총 1,500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 -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및 저탄소 투자 활성화 촉진 • '21년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 향후 조건 미달 시 투자활동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전망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ESG 채권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채권 발행 기업에 외부 인증비용과 컨설팅 수수료 등 관련 추가 비용을 지원 •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ESG를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에게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 신용등급을 부여, 이후 탄소 배출 목표를 위반한 기업은 사회적 신용 등급이 낮아져, 징벌적 조치나 높은 세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됨 • 한국, 지배구조보고서 보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1조 원 이상('22년까지), 5,000억 원 이상('24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까지 적용할 방침('26년까지)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별 ESG 펀드가 추구하는 ESG 전략 및 목표에 대한 명시 의무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ESG Financing 》 자금조달·투자 기준으로 부상하는 ESG 요소

금융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연기금의 투자 심사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추세로, 향후 기업 자금조달 시 ESG의 중요성 증대. 코로나19 발발을 계기로 글로벌 ESG 채권 발행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ESG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과 유형 다양화,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높아지고 있음

자금조달에 있어 ESG 요소의 중요성 증대

국내외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대출 심사 확대

- ESG 평가기준 충족 수준을 대출금리 등에 반영하는 지속가능연계대출 확대 추세
 - ING, BNP Paribas, ABN Amro, MUFG, SMBC, Mizuho, DBS, OCBC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 증가
 - 국내에서도 KB금융, 신한금융 등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
- 국내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ESG 투자 본격화
 - '20년 3분기 기준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민연금 등 3,300개 기관(운용자산 규모 103.4조 달러) UN PRI 서명
 - 국민연금, '21년부터 ESG 투자 관련 벤치마크 지수 개발·위탁투자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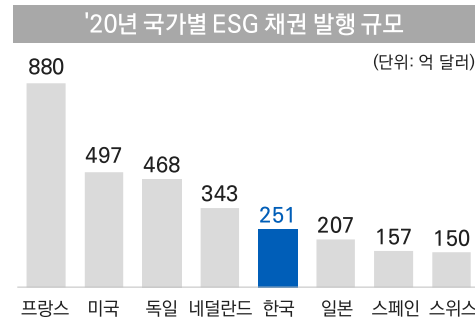
지속가능연계 대출 관련 국·내외 현황		
구분	기업	금리변동기준
글로벌	ING 외 15개사 공동 10억 유로 → Philips (2017.4)	일자리 창출
	MUFG·Norinchukin·Mizuho·SMBC 500억 엔 → NYK line (2019.11)	ESG 등급
	BNP Paribas·Commerzbank·UniCredit 7.5억 유로 → Telefonica (2019.12)	ESG KPI
	SMBC 1억 파운드 → Clarion (2020.1)	ESG 등급
	OCBC 2억 유로 → Mapletree (2020.3)	ESG 등급
국내	현대캐머셜/크레비스: 2020년 3월부터 기업대출심사·투자 시 ESG 등급 반영	
	KB금융: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ESG 등 비재무 정보 반영방안 검토 중	

Source: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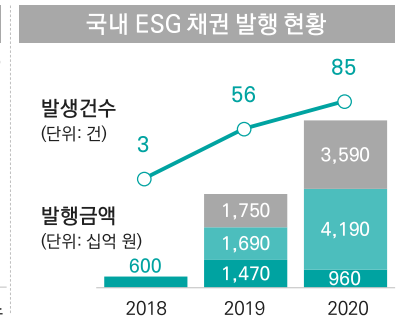
ESG 채권 발행 및 펀드로의 자금 유입 증가

국내외 ESG 투자로의 자금 유입 증가세

-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 증가 및 채권 유형 다양화
 - '20년 중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
 - '20년 중 국내 ESG 채권발행 규모는 8.7조 원으로 최근 현대카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의 참여도 확대 추세
-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2020년 2월 기준 3,869억 원으로 2년 전(1,451억 원) 대비 2.6배 증가
 - 2020년 2월 이후 3개월간 주식형펀드(-1.4조 원), 채권형 펀드(-3.1조 원) 자금 유출 대비 ESG펀드의 경우 153억 원 자금 순유입



Source: 블룸버그('20.12.10 기준)



Source: 한국거래소('20.12.8 기준)
Note: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분 제외

ESG M&A 《 리스크 해소와 신사업 기회, M&A 시장에 부는 ESG 테마

ESG는 딜 소싱(Deal sourcing)과 M&A 대상 기업의 가치산정(Valuation)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국내에도 전기차 배터리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거래액 5,000억 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로 나타남

M&A에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 ESG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대상 기업의 사업 인허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없이 오염 유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인수 후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이 있음 국제사회와 비영리기구들이 제기해온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경적 사업을 정리
사회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시 주주를 넘어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의 비주력 프랜차이즈 사업 매각 시 가맹점주와 협력사도 고려, 사업 분할·신설 시 직원 처우 고려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등 반윤리적·비인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처분(한화의 분산탄 사업 매각 등)
지배구조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 비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자를 선임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함 신규 전문가 초빙의 경우 보상 시스템 개선 필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검토 필요



딜 소싱(Deal sourcing)과 가치산정(Valuation)에서 ESG 중요성 증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020년 국내 ESG 관련 주요 M&A

매각대상		매도자	인수자	금액(원)	비고
EMC 홀딩스 ('20.9)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어펠마 캐피탈	SK건설	1조500억	SK건설은 환경 산업에 처음으로 진출
두산 솔루션 ('20.7)	전기차 배터리용 소재 생산	두산그룹	스카이레이크	7,000억	롯데그룹이 두산솔루션 인수펀드에 2,900억 원 투자
ESG 그룹 ('20.6)	의료폐기물 처리	앵커에쿼티 파트너스	KKR	8,750억	KKR은 ESG 투자목적의 ‘글로벌 임팩트 펀드’ 조성
코엔텍·새한환경 ('20.6)	산업폐기물 처리	맥쿼리PE	IS동서-E&F 컨소시엄	5,000억	IS동서-E&F는 '19년부터 인선이엔티, 코오롱환경에너지 등 인수

Source: 언론보도 종합

Note: 괄호는 M&A 공시일, 인수금액은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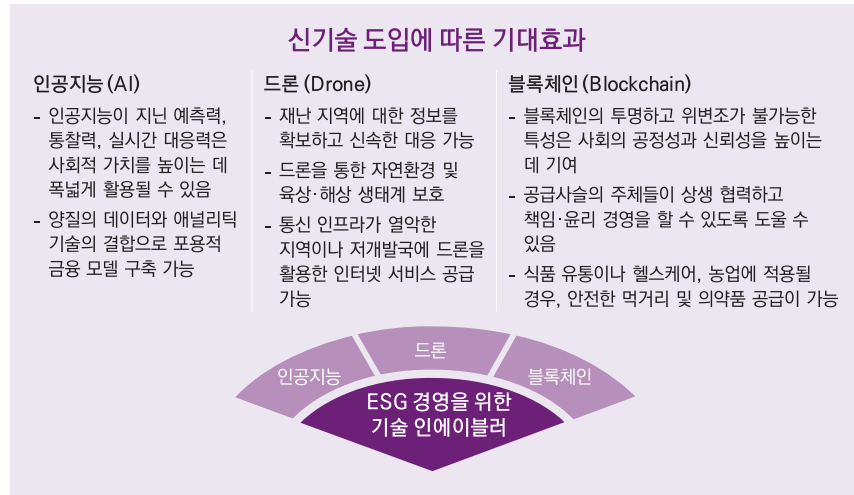
ESG Tech 《 신기술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현재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 신기술은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인에이블러’로서의 역할을 수행

ESG 경영을 위한 인에이블러(Enabler)로서의 신기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인에이블러’로서의 신기술 부각

- 기술은 사회와 환경, 우리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신기술 활용 사례

기업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Advancing AI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하에,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추구 •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연구를 진행 중 • 안과 검진 과정에 머신러닝을 접목해 당뇨성 망막증을 예방하거나, 수중 데이터를 활용해 멸종 위기의 고래를 보호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벅스는 2018년 3월부터 블록체인으로 커피 원두의 생산 및 유통 이력을 조회하는 ‘빈투컵(Bean to Cu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커피 재배 농부의 이력부터 커피 콩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공정무역을 보장하고 커피 생산 국가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소프트는 100% 친환경 에너지(태양력, 풍력, 조력)로 가동되는 해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나틱(Project Natick)’을 2015년부터 추진 중 •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실증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력소비 절감, 지상 데이터센터 대비 고장율 감소, 해안 도시 거주자 대상 서비스 속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됨

Source: 언론보도 종합

ESG Reporting 》 지속가능성 보고율 상승 및 제3자 인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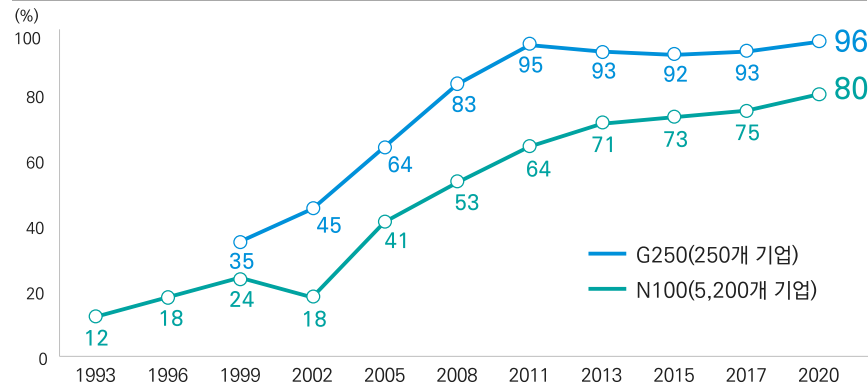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의 ESG 등 지속가능성 보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기업은 ESG 정보공시를 통해 자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평가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3자로부터 인증 받는 기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ESG 정보공시 및 보고(Reporting) 글로벌 현황

Top 100 기업 80% 지속가능성 보고 수행

- KPMG의 전 세계 52개국 5,20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 조사 결과,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250개(G250) 기업의 96% 및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N100)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율의 증가 추이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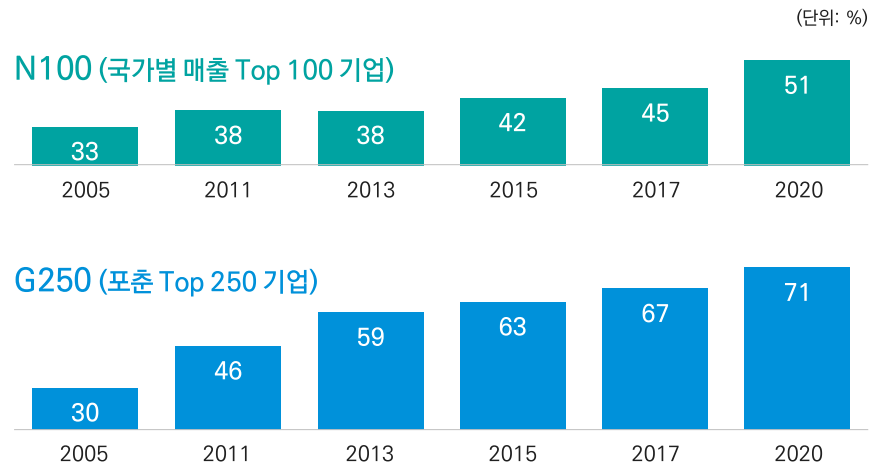
Note: N100(5,200개 기업)과 G250(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N100은 KPMG 전문가들 5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을 뽑아 구성. G250은 2019년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을 의미함

ESG 보고의 제3자 인증(Assurance) 증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은 기업 표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

- KPMG의 조사 결과, 2020년 지속가능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받는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N100) 기업의 수는 50%를 상회하였으며, 포춘 상위 250개(G250) 기업 중에는 71%에 달함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 증가 추이



Source: KPMG Survey of Sustainability 2020

Contents

	Page
I. ESG 경영 시대의 도래와 배경	2
II. ESG 경영의 5대 Agenda	6
III. Key Takeaways	12

III. Key Takeaways

ESG 경영 Agenda별 대응 전략과 기대효과

ESG 경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Value Creation)로 연결되는 성장 동력임. ESG 경영의 핵심 Agenda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민첩하게 내재화 하는 기업이 미래 경영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음

ESG 대응 전략과 기대 효과

	대응전략	기대효과
 ESG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규제와 자사 비즈니스를 연계한 전략 수립과 내재화 외부 전문기관, 내부 TFT를 활용한 ESG 규제/정책 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련 규제/정책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 규제로 인한 리스크(벌금, 영업 제한 등) 완화
 ESG 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련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ESG 경영 내재화, 공시 및 외부 인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조달 비용 감소와 최적의 자금 조달 기회 확보 투자자의 다변화와 저변 확대
 ESG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딜 소싱 시 환경오염 유발, 사회 갈등 야기, 경영진의 비리 등에 대한 기업 스크리닝(Screening) 강화 반환경적, 반윤리적, 비인도적 사업에 대한 매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프리미엄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 M&A 대상 기업의 정부 규제 리스크 감소
 ESG 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통해 ESG 신기술 역량 강화 신기술 도입이 적합한 비즈니스 및 ESG 분야 발굴과 단계적·체계적 도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신기술 투자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
 ESG Repo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 측정 모델 개발 ESG 활동 및 성과를 재무성과와 연계하여 보고하는 통합 보고(Integrated Reporting)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관리 및 가치 창출 도구로 ESG 정보 활용 ESG 평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 상승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고객 로열티 상승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ESG 서비스 전문팀

Business Consulting

이동석 전무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gnamkim@kr.kpmg.com
--	---

Deal Advisory

김진원 전무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이동근 상무 T: 02-2112-7764 E: dlee@kr.kpmg.com	이준상 상무 T: 02-2112-7566 E: joonsanglee@kr.kpmg.com
--	---	--

Audit

조정래 상무 T: 02-2112-7525 E: jjoh@kr.kpmg.com	강창수 상무 T: 02-2112-0195 E: ckang@kr.kpmg.com	최진석 상무 T: 02-2112-7669 E: jinseokchoi@kr.kpmg.com	정재욱 상무 T: 02-2112-7909 E: jjoung@kr.kpmg.com
---	--	--	---

kpmg.com/kr

© 2020 Samjong KPMG ERI Inc.,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